紅樓夢의 評價

— 紅樓夢의 世界 —

郭 利 夫

目 次

I 序 論
II 本書의 作者
III 本書의 內容
IV 本書의 評價
A. 偉大한 曠野의 悲劇
B. 優美한 婦女群像
V 結 論

I 序 論

淸의 人情小說로는 乾隆年間(1765年頃)에 「石頭記」라고 하는 小說이 忽然 北京에 나타나 五·六年이 지나더니 盛行되었다. 그러나 모두 寫本으로서 數十金으로 廟市에서 팔고 있었다.[1]

才子佳人의 悲歡離合을 取扱한 것들로, 最大傑作은 「紅樓夢」이다. 「紅樓夢」은 愛情小說中의 最大傑作일 뿐만 아니라 淸朝一代의 小說 中의 왕자라 하겠다. 「紅樓夢」이 있으므로 淸代小說을 論하게 된다고까지 할 수 있는 優秀한 作品이다. 「紅樓夢」이 나오자 「三國誌演義」의 자리를 빼앗고 四大奇書의 하나로 들어앉게 되었다. 「紅樓夢」의 原名은 「石頭記」, 혹은 「金玉緣」이라고도 한다. 또 「愛僧錄」·「風月寶鑑」·「金陵十二釵」等으로 부르기도 한다. 一時 禁書에 列入되었으므로 이러한 別稱이 생긴 것이다.[2] 「不入流」의 小說이다.[3]

淸代의 文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駢文, 散文 또는 詩, 詞 같은 貴族的인 正統文學이고, 다른 하나는 戲曲, 小說, 彈詞 같은 通俗的인 社會文學이다.[4]

通俗的인 白話文學은 廣大한 民衆의 환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점점 文人들도 그 價値를 認識하게 되어 천천히 正統派의 古典貴族文學의 地位를 먹어들어가게 되었다.[5]

---

1) 丁來東·丁範鎭 (역), 中國小說史, 魯迅 著 (서울 : 鍾文社, 1964), p. 293
2) 車相轅, 中國文學史 (서울 : 東國文化社, 단기4291년), p. 663
3) 孟瑤, 中國小說史, 第四册 (臺北 : 文星書店, 民國五十五年), p. 510,
4) 장기근(역), 중국문학사, 胡雲翼 著 (서울 : 한국번역도서, 단기 4294년), p. 335
5) Ibid. p. 373

당시의 소설은 正統派文學이 아니었기에 紅樓夢의 作者 曹 雪芹은 줄곧 通俗的 文學의 범위에서 百餘年 동안 寂漠하게 되었다. 胡適氏가 曹 雪芹에 關해서 硏究를 始作함에 비로서 熱氣가 일어났다. 近 五十年來에 참으로 끊임없이 新資料가 發現되어 作者의 確定, 性格等을 理解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케 發現된 資料는 아직도 偉大한 作家가 써낸 生動하는 傳記에 比하기에는 充足치 않다.

紅樓夢은 冊數로는 十六本이 있고(紅樓夢, 日本刊行. "增評繪圖大觀瑣" 本), 章回로는 百二十回가 있다. 情節을 論하면 十九年 동안 賈府 家庭의 些少한 일, 親戚, 親友의 興亡과 盛衰의 遭遇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간단한 作品이 아니다. 또한 범위를 論하면 家庭, 社會, 敎育, 宗敎, 政治, 經濟, 婚姻, 風俗 等의 中國文化와, 人物論으로는 四百四十八名(男子 二百三十二人, 女子 二百十三人)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作品이다.

이렇게 普遍的으로 범위를 넓게 잡은 한편의 作品으로는 톨스토이의 戰爭과 平和를 除外하고는 비길것이 없다.[6]

故로 紅樓夢의 表現한 諸般 時代意識을 分析, 評價함이란 容易한 일이 아니다.

本稿에서는 作者와 內容을 簡略하게 論하고, 悲劇性을 中心으로 한 紅樓夢을 評價, 분석코저 한다.

Ⅱ 本書의 作者

著者에 對하여 구구한 얘기가 많다 紅樓夢의 저자가 확실히 曹 雪芹으로 判定되기는 1921年에 胡適이 쓴 「紅樓夢考證」에서였다.[7]

袁枚의 隨園詩話 二卷에 「康熙中 曹練亭爲江寧織造, 其子 雪芹撰 紅樓夢一書, 備記風月 繁華之盛, 中謂所謂 大觀園者, 即余之隨園也.」라고 쓰여 있는데 其實은 가장 먼저 나왔으나 그것이 確定된 것은 反對로 가장 後이였다. 여기의 끝 두 句節은 誇張일 것이며 그 밖에도 小誤가 있다. (例를 들면 棟을 練이라 했고, 孫을 子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미 曹 雪芹의 書이며 記述한 바는 그의 見聞인 것임을 明白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世間에는 이를 믿는 者가 特히 적었고 (「靜菴文集」)는 또한 이런 따위를 詰難하여 "所謂'直接보고 들었다'고 한 것은 또한 傍觀者의 입으로부터도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作者自身이 劇中의 人物이란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胡適이 考證을 지음에 이르러서야 뚜렷하게 밝혀져, 曹 雪芹은 實로 榮華속에서 나서 零落속에서 끝마쳤으며, 半生의 經歷은 "돌"과 흡사했고 北京 西郊에서 冊을 썼으나

6) 李辰冬, 紅樓夢硏究 (臺北 : 新興書局, 民國四十七年) p. 32

7) 胡適, 胡適文選 (臺北 : 遠東圖書公司, 民國五十三年) p. 303

完成을 못보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늦게 나타난 것은 高鶚이 續成한 것이다.[8]

曹雪芹의 姓은 曹, 이름은 霑이고, 字는 芹溪, 또는 芹圃라고 했으며, 號는 雪芹 또는 芹溪居士라고도 했다.

그의 出生과 逝去年月日은 異說이 있어 康熙五十四年(一七一五年)부터 雍正二年(一七二四年) 사이에 태어났고, 乾隆二十七年(壬午年)의 除夕(西紀 一七六三年 二月 十二日이 아니면 乾隆二十八年(癸未年)의 除夕(西紀 一七六四年 二月 一日) 兩說이 있다.[9]

그의 先祖는 漢人이며 河北省 豊潤縣이 原籍이다. 李玄伯氏가 故宮週刊 第八十四期(民 二十年, 一九三一年)에 發表한 曹雪芹家世新考라는 한편의 글에서 曹氏의 原籍은 河北의 豊潤이라고 했다.

그 後에 北平 新民報北海版 (民 三十六年, 一九四七年)에 守相이라는 사람이 쓴 한편의 글 曹雪芹籍貫을 引用하면

「淸未入關時, 遼東漢人之歸附者, 多隸漢軍旗籍, 紅樓夢作者曹雪芹卽其一也. 皇朝通志及 八旗世族通譜皆謂其世居瀋陽, 而不知 曹氏本河北之豊潤焉. …」云云.

그런고로 曹氏의 原籍은 河北 豊潤이 매우 根據가 있는 말이다.

代代로 瀋陽地方에 居住하였다.[10]

滿州族에 降服하여 淸滿軍八旗의 하나인 正白旗에 屬하였다.

霑의 高祖는 曹振彥이며, 曾祖父는 曹爾玉이며, 祖父 曹寅(字는 子淸, 號는 楝亭)이며, 長孫인 曹顒가 病으로 일찍 逝去하니, 그의 父親 曹頫가 曹寅의 養子로 入養하였는데 祖父와 父親은 代代로 江寧織造(宮廷의 織物을 짜는 監督官)의 職을 지냈다.

淸의 世祖(여기의 世祖는 마땅히 聖朝로 해야 된다. 編者註)가 南巡했을 때 다섯번이나 織造署를 行宮으로 했었는데 나중 네번은 모두 寅이 在任해 있을 때였다. 그러나 퍽 風雅를 좋아하고, 일찌기 古書十餘種을 刻하여 그 當時에 稱하는 바가 되었었다. 또 能文하여 著書로 「楝亭詩鈔」 五卷, 「詞鈔」 一卷 (「四庫書目」과, 傳記 二種(在園雜誌」)이 있다.[11] 康熙帝가 薨逝(康熙六十一年)하니 雍正帝가 卽位하였다. 모두들 알다 싶이 이 中間에 하나의 最大 家庭慘變을 겪었으니 所謂 「奪嫡」인 骨肉相爭에 最後로 胤禛이 成功하니 곧 世宗인 雍正帝이다.

그가 卽位한 然後 王位權 爭奪戰에 參與한 많은 敵派들은 모두 嚴한 懲罰을 받게 되었도다! 雍正五年에 李煦가 罪를 지어 獄에 갇히게 되니 曹頫이 江寧織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曹家 江寧으로부터 北京으로 移住하였다.

8) 丁來東 · 丁範鎭 (역), op. cit,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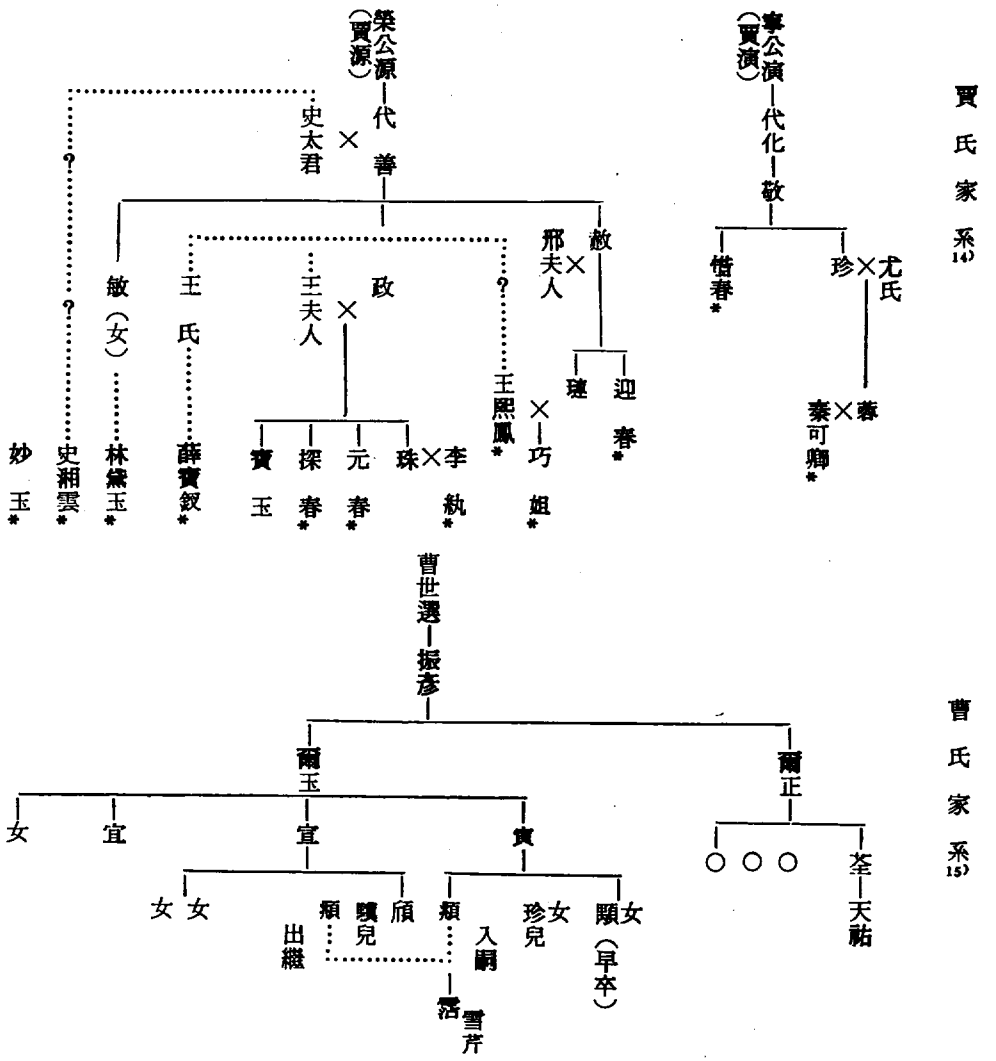
9) 塚本照夫,"家와 靑春" 中國小說의 世界(東京:評論社, 昭和 四十五年, 十二月)p. 225

10) 孟瑤, op. cit. 512

11) 丁來東 · 丁範鎭(역), Loc. cit.

雍正帝가 帝位繼承 爭奪戰에서 公金을 썼다는 罪로 曹家가 問責되어, 雍正六年(一七二八年) 家産이 沒收되니 一家를 거느리고 北京으로 移住하였다.[12]

雍正十三年에 世宗이 薨去하니 高宗인 乾隆이 即位하였고, 曹頫도 內務府員外郞에 起用되니 曹家는 다시 조금씩 家勢가 恢復되어 小康의 局面이 되었다. (即紅樓夢裡開始的情形). 乾隆十年에 이르러서는 또한 어떤 變을 당하게 되어 家勢가 沒落하니 이때가 雪芹이 二十二歲였고 貧困하니 北京西郊로 移徙를 하니 그의 紅樓夢構想의 開始期이다.[13]



12) 塚本照夫, op. cit. p. 224
13) 孟瑤, op. cit. p. 517
14) 丁來東·丁範鎭 (역), op. cit. p. 295
15) 孟瑤, op. cit. p. 524

以上으로써 曹氏의 先祖를 알게 되어 大槪의 輪郭을 理解하게 되어 우리들이 紅樓夢을 理解하고 欣賞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위의 圖表는 曹氏와 賈氏族譜의 大要이다. 賈氏 家系에 点線을 친 곳은 그의 姻戚이고, × 標를 붙인 것은 夫婦間이며, *표를 붙인것은 "金陵十二釵"로서 헤아려지는 者들이다.

曹氏 家系와 賈府 家系를 比較하도록 하였다.

Ⅱ 本書의 內容

石頭城(金陵은 아니다)에 있는 賈府는 寧國·榮國二公의 後裔였다. 寧公의 長孫은 敷라는 자로 일찍 죽고;次弟 敬이 襲作하였는데, 그는 性質이 道教를 좋아하여서 爵位를 아들 珍에게 讓與하고 自己는 집을 버리고 仙을 배웠다. 珍은 드디어 放蕩하고, 그 아들 蓉은 秦可卿을 娶하였다. 榮公의 長孫은 赦라고 하는 者요 그의 아들 璉은 王熙鳳을 娶하였다;赦의 弟는 政이라 불렀고, 妹는 敏이라고 불렀는데 林海에게 出嫁하였다가 中年으로 죽고 겨우 黛玉이라는 딸 하나를 남겨 놓았다.

賈政은 왕을 娶하여 아들 珠를 낳았으나 일찍 죽었고, 다음 딸을 낳아 元春이라 불렀는데 後에 選拔되어 妃가 되었다; 그 다음 다시 아들을 낳으니 玉을 물고 태어났고, 그 玉에는 또 글자가 있었으므로 이름을 寶玉이라 했고, 사람들은 모두 "來歷이 크다"고 하여 政의 母인 史太君은 特히 그를 寵愛하였다. 寶玉이 벌써 七·八歲가 되니 聰明絕人 하였으나 性質은 女子를 좋아하고 항상 말하기를 "女兒는 물로 만든 骨肉이며, 男子는 진흙으로 만든 骨肉이다"라고 하여 사람들은 이 때에 또 將來에 그가 "色魔"가 될거라고 생각했다. 賈政 亦是 그를 그렇게 愛之重之하지 않고 엄하게 그를 養育하였다. 대개 그는 "이 寶玉의 來歷을 알지 못했다. …工夫를 많이 하여 글자를 많이 알고, 여기에 致知格物의 功勞가 加하여지고, 深奧微妙한 理致를 洞察할 수 있는 힘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면 寶玉에 對한 것을 알 수 없었다." (戚本第二回賈雨村云), 그러나 賈氏 門中에는 實로 또한 "婦女子들이 총총하였다". 主從 以外 姻戚들도 많았으니 例를 들면 黛玉, 寶釵 等도 모두 와서 寄寓하고 있었고, 史湘雲도 때때로 왔으며, 尼 妙玉은 後園에서 修道하고 있었다.[16]

스토—리는 林夫人(賈敏)의 죽엄으로부터 始作하고; 黛玉은 依賴할 사람을 잃고 또 病을 잘 앓어 마침내는 外家에 와서 依持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는 寶玉과 동갑으로 열 한 살이였다. 얼마 안있어 王夫人의 여동생이 낳은 딸도 왔었으니 그가 곧 薛寶釵로서 그들보담 한살이 더 많았고 아주 端麗하였다. 寶玉은 純朴하여 그 두 사람을 아울러 사랑하고 偏心이 없었다. 寶釵

16) 丁來東·丁範鎭 (역), op. cit. p. 294

는 그런 것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黛玉은 若干 분해했다. 하루는, 寶玉이 疲困해서 秦可卿이 房에서 누었다가 문득 꿈을 꾸니, 自己가 太虛境에 들어가 警幻仙을 만나고 「金陵十二釵正冊」과 「副冊」을 閱覽했는데 거기에는 그림도 있고 詩도 있었으나 解得하지 못했다. 警幻은 新制의 「紅樓夢」 十二支를 唱하게 하였는데 그 末闋은 「飛鳥各投林」이였고 詞는 다음과 같았다: "官吏가 되었던 者는 家運이 조령했고, 富貴했던 者는 金銀을 蕩盡했네. 恩寵이 있었던 者는 죽엄에서 逃生했고 無情했던 者에게는 分明히 應報가 있었네. 命을 빚진 者에게는 命을 이미 갚아 주었고, 눈물을 빚진 者자에게는 눈물을 이미 다 쏟게 하였구나!……깨달은 者는 佛門으로 遁入했고, 어리둥절했던 者는 헛되이 生命을 잃었다. 마치나 먹을 것을 다 찾아먹고 난 새들이 숲속으로 들어 가버린 것처럼 一片의 희고 茫茫한 大地만이 남아서 참으로 깨끗하구나! "그러나 寶玉은 또 解得치 못하고 다시 다른 꿈을 꾸고 나서 깨어났다. 元春이 選拔되어 妃가 되었을 때에는 榮公府는 더욱 貴盛해졌으며, 그녀가 歸省했을 때는 大觀園을 꾸며 宴會를 베풀으니 親族이 모두 이르러 天倫之樂을 極度로 누렸다. 寶玉도 漸漸 자라나서 밖에서는 秦鍾이나 蔣玉函과 親하고 들어와서는 姉妹와 從姉妹 그리고 侍兒들 例를 들면 襲人·晴雯·平兒·紫鵑輩들 사이에서 行動하고 그들과 親하면서도 그들을 尊敬하여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까 두려워 하고, 누구든지 고루 사랑하는데 마음을 썼으므로, 근심은 또한 날로 甚했던 것이다.[17]

그러나 榮國府는 비록 溫赫하였지만 "날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많아지고 事務는 繁盛하여 主僕上下에 安富尊榮하는 者는 한껏 많아졌으나, 家計를 運營計劃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 日用凡節은 또한 참고 儉約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外面으로 봐서 形体는 아직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內幕은 오히려 빈탕이였다. "(第二回) 氣運이 닥치는 變故는 漸漸 더 많아졌다. 寶玉은 榮華豊厚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또한 여러번 "無常"과 當面했었다. 먼저는 可卿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고, 秦鍾이 夭逝했으며, 自己自身은 또 아버지의 妾의 呪咀之術에 걸려 거의 죽을뻔했고; 연달아서 金釧이 샘에 投身했고, 尤二姐는 金을 삼켰고, 그래서 사랑하하던 侍兒 晴雯은 또 쫓겨나서 그만 죽어버렸다. 悲慘한 안개는 華林을 뒤덮고 있었지만 그러나 呼吸해서 이것을 感知한 사람은 다만 寶玉뿐이었다.[18]

「石頭記」의 結局은 비록 일찌기 寶玉의 幻夢속에 隱現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八十回에는 겨우 "悲音"을 들어내고 있을 뿐, 그 結果를 살펴보기는 特히 어렵다. 乾隆五十七年(1792)에 이르러 百二十回의 排印本이 나온 것이 있는데 「紅樓夢」이라 改名하고 字句도 때때로 같지 않은 것이 있다.[19]

紅樓夢은 大別하면 二種類가 있다. 하나는 作者의 原稿本에 가까운 「脂硯齋評本」이 八十回本

17) Ibid. pp. 295~296
18) Ibid. p. 299
19) Ibid. p. 302

系統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高鶚의 續作인 四十回本을 더하여 百二十回本系統의 것이다.

前者에는 五種의 古寫本이 現存하는데, 그것은 「甲戌本」, 「己卯本」, 「庚辰本」, 「甲辰本」, 「己酉本」(略稱)이 있다. 또한 同系統의 石印本으로는 「有正書局本」(大字本과 小字本의 二種)이 있다. 八十回까지는 애기가 未完成인채 끝이난다. 後者는 八十回에 四十回를 더하여 百二十回가 되어 「程偉元本」과 「王希廉本」等이 있다.[20]

今日에 流行되는 百二十回本은 高鶚이 더 이은 것이고; 前八十回는 曹雪芹의 原來 쓴 것이다.

高鶚이 增補한 百二十回本 紅樓夢은 乾隆辛亥年(五十六年, 一七九一)에 程偉元이 第一次로 活字印本을 냈다.

우리들은 略稱하여 「程本」이라 하고 그 中에는 程偉元 序와 高鶚 序가 있다.[21]

程偉元은 그 앞에 序하여 이르기를 "……그러나 原本의 目錄은 百二十卷이며, ……이에 盡力하여 搜羅하여, 藏書家는 심지어 못쓰는 종이의 무데기 속까지도 지나보지 않았다. 그러나 數年以來, 겨우 二十餘卷을 뭉았을 뿐이다. 어느날, 우연히 古物장수의 짐꾸러미에서 十餘卷을 求해서 비싼 값으로 그것을 샀다. …… 그러나 형편없이 낡고 頭序가 없어, 이에 親舊와 같이 細密한 修正을加하여 截長補短하여 全部를 鈔寫하고 다시 板에다가 새여 同好人에게 公開했다. 「石頭記」의 全書는 이에 이르러 비로소 完成을 보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友人이라고 한 것은 대개 高鶚을 말한 것이며 그도 亦是 序가 있고 끝에다가 "乾隆辛亥冬至後五日"이라고 題한 것을 보면 程의 序보담 一年이 앞서 있다.

後의 四十回는 비록 數量은 初本의 半에 不過하지만 그러나 大事件이 迭起하고, 破滅과 死亡이 連續하여 所謂 "食盡하니 새는 날아가고, 다만 白地만 남아 있다"고 한것과 아주 符合된다. 다만 結末엔 또 稍振되고 있다.

寶玉은 먼저 그 通靈玉을 잃고 失神狀態가 된다. 賈政이 地方으로 赴任되어 갈려고 할 때, 그는 寶玉이 娶婦한 後에 出發하려고 하여 黛玉은 이약하였으므로 이에 寶釵를 맞아들인다. 婚事는 王熙鳳에 依해 謀劃되어 아주 秘密裡에 進行되었지만 結局 黛玉이 알게 되어 嘔血을 하고 病은 날로 심해져 寶玉이 結婚하는 날에 이르러 드디어 죽고만다. 寶玉은 이제 結婚하게 됨을 알았으나 自己의 配偶者는 반드시 黛玉이라고 생각하고 欣然히 臨席하여, 新婦가 寶釵임을 알게 되자 이에 悲嘆한 나머지 또 病이 들었다. 이때 元妃는 먼저 죽었고, 賈赦는 "地方官과 서로 通하여 勢道로써 弱者를 辱보였다."고하여 免職되고 家產을 沒收當하여 累는 榮府에 미치게 된다. 史太君도 또 죽고, 妙玉은 盜賊에게 劫掠當하여 간곳을 몰랐고 王熙鳳은 이미 勢를 잃어버리고 鬱鬱해서 죽고만다. 寶玉의 病勢도 甚해져, 하루는 거의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忽然

20) 塚本照夫, op. cit. p. 226

21) 孟瑤, op. cit. p. 259

어떤 僧侶가 通靈玉을 가지고 와서, 마침내 蘇生하더니 그 僧을 보더니 또다시 氣絶하고 惡夢을 거치고 나서 깨어 났다. 이로부터 忽然 改行하고 發憤하여 家門의 名聲을 떨칠려고, 그 다음해 鄕試에 應하여서 일곱째로 及第했다. 寶釵도 姙娠을 했으나 寶玉은 突然 家出하고 말았다. 賈政은 어머니를 金陵에다 葬하고 나서 將次 京師로 돌아갈려고, 雪夜에 배를 毗陵驛에다 定泊시키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모자도 안쓰고 신발도 안신고 크고 새빨간 毛氈으로 만든 外套를 입고 그를 向하여 절을 하므로 자세히 보고 寶玉임을 알았다. 막 말을 붙일려고 하는데 忽然히 一僧과 一道士가 오더니 그를 끼고 모두 가버리니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노래를 지어 "大荒으로 돌아가네"라고 불렀다. 쫓아가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고 "다만 白茫茫한 一片의 曠野만이 보였을" 따름이었다. "後人은 이 傳記를 보고 또한 일찌기 四句를 題한 것이 있는데 作者의 發端의 詩를 爲하여 一竿을 더 나아가서 이르기를 "쓰라린 일을 말하게 되면 荒唐하여 더욱 슬프도다. 原來부터 모든 것은 한바탕 꿈과 같은 것이니, 世人의 어리석음을 웃지 말아라."라고 하였다."(第一百二十回)

全書에 描寫된 바가 비록 다름아닌 悲喜의 情과 聚散의 跡이라곤 할지라도 그러나 人物事件은 舊套를 벗어났으므로 前에 있었던 人情小說과는 아주 틀리다.[22]

그 內容을 分析해 보면 榮華로운 環境에서 시작되어 점차로 沒落해가는 貴族의 生活 환경이 그 背景으로 되어 있다.[23]

Ⅳ 本 書 의 評 價

A, 偉大한 광야의 悲劇

한 作家가 萬若 한편의 作品을 쓰는데 사람의 心琴을 울리고 共鳴할 수 있는 大悲劇으로 쓰려고 한다면, 그는 결코 數많은 偶發的인 不幸한 事件을 利用키는 不可能하고, 組合함으로써만이 成功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必須的으로 그의 筆鋒을 두 가지 点에서 確實히 맞춰야 하는데; 環境과 性格의 衝突, 즉 有生과 無生의 矛盾이다. 前者는 後天的인 것으로 어느 한 時代의 意義를 代表하고. 後者는 先天的인 것으로 出生과 더불어 諸般苦難을 代表한다. 紅樓夢은 두 가지 意義를 모두 갖춘 曠世의 大悲劇이며, 始終如一하게 環境과 性格의 충돌을 强調한 作品이다.[24]

環境은 賈寶玉을 둘러싸고 있는 封建社會의 傳統的인 大家族社會, 곧 家庭을 意味한다고 할

22) 丁來東·丁範鎭(역), op. cit. pp. 302~304

23) 尹永春, "19世紀의 東西文學"(박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1974), p. 314

24) 孟瑤, op. cit. p. 449

수 있다.

性格은 反傳統的 思考方式을 가진 賈寶玉이 大觀園에서 싹튼 愛情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작가는 作品에 한 분 혹은 몇 분의 重要人物을 모두 갖는데, 그들을 自己의 代辯人으로 쓴다. 例를 들면 셱스피어의 하므렛, 괴테의 화우스트, 톨스토이의 戰爭과 平和에서의 안들레이와 나타샤이다.

紅樓夢에는 曹雪芹의 代辯人으로써 當然히 賈寶玉이다. 寶玉은 한 분의 天生의 哲學家이다. 태어나면서 곧 그는 人生觀을 갖는데, 其他 作品에는 主人公의 人生觀은 배우고 난 연후에야 갖게 되는 것과 다르다.

寶玉은 태어나서 出家하기까지 19년간 별로 공부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응당 어떻게 生活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매우 똑똑히 알았다.[25]

寶玉은 곧 그 當時代의 叛逆者이다. 그는 鐘鳴鼎食의 집안에 태어나 錦衣玉食의 生活을 營爲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그 封建貴族으로써 大家庭中의 가장 협조치 않은 얼굴 빛을 들어낸다. 그는 강열한 反功利主義者였고, 따라서 가장 기본의 思想을 발휘하였다. 同時에 擧業에 反對했으며, 또한 그는 讀書를 하여 「國賊」이 되는 것을 나무랬고, 「立身揚名」이나 「文死諫武死戰」의 忠君愛國의 人物을 鄙棄하였다.[26]

作者는 第三回에서 寶玉을 紹介할 때 一首의 詞「西江月」로써 偏僻性과 世人에게 誹謗받는 바를 表示하였다.

無故尋愁覓恨　有時似傻如狂
縱然生得好皮囊　腹內原來草莽
潦倒不通庶務　愚頑怕讀文章
行爲偏僻性乖張　那管世人誹謗

富貴不知樂業　貧時難耐凄凉
可憐辜負好時光　於國於家無望
天下無能第一　古今不肖無雙
寄信紈袴與膏粱　莫效此兒形狀

까닭도 없이 수심을 짓고
어떤땐 귀신한테 홀린 것같이
걸만은 무언가 있는 체해도

25) 李辰冬, op. cit. p. 34
26) 孟 瑤, op. cit. p. 450

속은 텅텅 빈 쭉정이
세상물정 모르는 숙맥뿐인가
글이라면 내혼드는 썩돌대가리
그리고도 이래라면 저러는 심술
남이야 뭐라거나 저만 좋다지

주는 복도 챙기지 못하고서
배고프면 그때 가선 우는 못난이
모처럼의 아까운 날 다 허송하고
나라에도 집안에도 밥만 썩히네
무능하긴 천하에 따를 이 없고
얼되기도 고금에 다시 없을라
세상의 젊은네께 일러두노니
제발덕분 이 아이의 흉내는 말라.[27]

보옥의 人生觀은 과연 무엇인가? 그를 理解치 못한 사람은, 모두가 그는 糊塗하고, 目的이 없고, 바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의 人生觀은 곧「愛」이다

사랑을 얻으면 행복하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곧 苦痛이다. 人生의 富貴貧賤, 尊卑際遇에 秋毫도 介意치 않았다.[28]

그의 乖僻한 性格은 가난한 선비집에 살았더라면 問題는 그다지 엄중치 않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는 하나의 典型的 封建大家庭속에 살았기에 그가 비록 詩人처럼 自由奔放의 熱情을 가졌더라도 환경이 오히려 울타리처럼 그를 속박하였을 것이다. 그가 사는 榮國府의 높은 담장은 감옥과 같아서 그를 軟禁한 것과 같아서 一步의 自由도 없었고 오직 賈府의 大門을 드나들 수 있었지만 누군가가 꼭 그를 따라다녔고 조금의 잘못만 있어도 가장 그를 사랑하는 祖母 亦是 마음을 놓지 못하였기에 나무래곤 한다. 당연하게도 그는 이러한 것에 참지를 못하고 怨訴한다.「나는 온종일 집에만 恨스럽게 쳐발혀 있어야 하고……말할 수는 있지만 行할 수는 없다……」. 몇 겹의 壓制는 그의 反抗의 勇氣를 消滅시켰다.

더우기 賈寶玉이 發現하는 反抗의 對象이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이다. 그는 다만 消極的으로 逃亡쳐 숨고, 그의 父親 뵙기를 두려워 한다.[29]

---

27) 李周洪(역), 홍루몽 1권 (서울 : 乙酉文化社. 1969年) p.74
28) 李辰冬, op. cit. p. 33
29) 孟瑤, op. cit. p. 451

그러다가 어느날 賈寶玉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한차례 되게 매를 맞는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寶玉이 父親으로부터 매를 맞은 것은 紅樓夢 全 에기의 極点이라고 한다. 이것은 賈政의 正統思想과 寶玉의 叛逆作風이 數年間 衝突하다가 大暴發이기 때문이다.

이 見解는 옳다.

그러면 이 한바탕 혈전은 如何한가? 父子之間의 싸움은 一變하여 賈政과 그의 母親 賈母, 그의 妻 王夫人의 싸움으로 化한다. 그래서 寶玉을 屈服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寶玉이 優勢하여 反感만 助長한 結果가 되어, 賈政은 그들 앞에 倒潰되어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一戰이 發展한 結果는 매우 狼狽하는데, 즉 그것으로 因해서 晴雯의 죽음의 決定的 契機가 된다. 晴雯의 죽음은 寶玉과 黛玉間의 戀愛가 반드시 失敗한다는 前兆가 되었고, 寶釵와 襲人은 現實을 能히 파악하고, 寶玉은 반드시 逃亡한다고 充分히 說明하는 結果가 되었다.[30]

賈寶玉이 大觀園 속에서 노니는 가운데, 그의 愛情의 方向은 薛寶釵와 林黛玉으로 좁혀진다.

形形色色의 여성생활 가운데, 作者는 特別한 意圖로써 두 종류의 標準性格을 綜成했다: 하나는 正統派의 功利主義者로써 薛寶釵가 代表이다. 다른 하나는 반정통파의 情感主義者로써 林黛玉이 代表이다. 前者는 政治性이고, 後者는 藝術性이다. 前者는 現實을 爭取하고, 後者는 性靈을 發展시킨다. 一般的인 社會法則에서 보면, 前者는 應當 成功하고 後者는 必히 失敗한다.[31]

이래서 人生態度上, 그는 漸漸 寶釵와는 距離感이 있었고 黛玉은 도리어 日益親近하였는데, 허튼소리를 안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로하여금 黛玉에게 일종의 熾熱한 狂戀中으로 陷入시켰다. 서로가 深層度를 알게 되고, 眞摯하게 對하지만 原來가 그들로 하여금 終身토록 서로 지키고 伴侶者가 되는 幸福을 獲得하려 하였지만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不幸은 當時의 仲媒로 부모의 命令에 結婚하는 혼인제도가 그들의 光彩의 행복위에 비길데 없는 그림자로 投下된다.[32] 家族主義下의 혼인은, 所謂 自由란 없고 全部 부모가 혼인선택과 嫁娶等의 일을 일괄한다. 婚姻의 結合은 戀愛에 관계치 않고 부모의 喜悅에 따라서 한다; 萬若 부모가 贊同치 않으면, 남여가 서로 사랑하더라도 도저히 夫婦가 될 수는 없다.[33]

이래서 비극은 곧 여기에서 發生한다. 만약 寶玉에게 生命의 光輝가 十分强烈하였다면 其 强烈의 程度는 足히 逆轉의 時代를 비추고, 그가 力量이 있다면 그 時代가 光明을 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不幸한 그는 오직 하나의 燭光이 자기자신에 依해서 소훼되고, 또한 그 時代의 모퉁이를 비추기에도 不足하다. 結果는 그 時代가 그를 갈아 뭉게 버렸다.

---

30) 松菁. 紅樓夢人物論 (台北 : 新興書局), p. 17.

31) ibid. p. 2

32) 孟瑤, op. cit. p. 550.

33) 李辰冬. op. cit. p. 68

寶玉은 時代의 反逆者이기는 하였지만 現實을 背反하는 反逆者는 될 수 없었다. 그 자신이 獨白한 것처럼(얘기할 수는 있지만 행할 수는 없도다) 環境과 性格의 충돌에서 그는 勝利를 얻을 수 없었다. 즉 自己內心의 紛糾이며 일의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한다. 疑心할 것 없이 周圍環境이 오래도록 壓倦으로 充滿되었기에 그는 조금도 社會倫理, 道德의 觀念을 조금도 지키지 않았다. 오직 그와 黛玉이 사이에는 生命으로 이어진 愛情을 누가 終身토록 행복할 수 있도록 衷心으로 引導하여 줄 것인가에 對해서 고민한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여 주시는 조모 史太君앞에서 이러한 비밀을 고백할 용기가 결코 없었다.[34]

衷心으로써 모순을 消滅시키지 못하여 그들은 精神上으로 아직도 참으로 옳은 길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두 종류의 愛情의 激流는 끝없는 소용돌이 속에 삼켜 버린다. 우리들이 본 바로는 그들은 傷心과 生病이 나서; 구슬을 땅에 버리고, 미치게 한다. 드디어 한 분은 죽고, 한 분은 이룬 것 없이 집을 멀리 나간다. 이것은 眞正한 悲劇이오, 반드시 일종의 時代的 意義를 具備한 悲劇中에 人物의 희생은 그 자신에 끝이지 않고, 그들의 骨肉은 同時에 一個新時代의 營養이 되었고, 그들이 희생은 默默히 新時代를 推進하는 一步였다. 그들은 失敗하였고, 그들은 뭇사람에게 謳歌를 불리워지게 하였다. 紅樓夢은 悲劇類의 하나다.

紅樓夢이 曠世의 悲劇으로써 成功한 것은 性格과 環境의 충돌을 强調한 것 以外에 더욱 有生과 無生의 모순을 闡明하였기 때문이다.[35]

現實環境에 接觸은 두 사람이 꼭 같다. 時代가 그들을 용납치 않았고, 그들도 時代에 屈從치 않았다.[36]

人生의 最大 欲望은 兩種이 있다. 즉 聖人의 말씀처럼 「飮食男女, 人之大欲存焉」 飮食은 有限한 것이어서 把握이 可能하고, 비교적 용이하게 追求할 수가 있다. 人生은 총총히 왔다 가는 것이어서 求하려면 이 方面의 것은 滿足하여 어려운, 일이 아니다. 男女의 情은 도리어 無盡하여 極히 把握키 어려워, 十分 쉽게 滿足할 수가 없다. 이래서 人生에는 無比의 困頓이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凡夫俗子도 그의 掌心에서 뛰쳐 나오지 못하고, 天下의 數많은 英雄豪傑도 역시 마찬가지로 情緣에서 逃避하기가 어렵다. 商나라 紂나 周나라 幽도 이렇게 하여 亡하고, 唐 玄宗이나 後唐 莊宗의 英武도 도리어 이런것 때문에 그들의 세운 功業을 親手로 毁滅하였다. 이것은 人類一切의 欲望中에서 가장 强烈한 일종이어서 人生의 가장 優美한 詩篇을 읊조리게 하였고. 고통스럽고, 노래를 불렀고, 눈물의 悲劇을 쓰게 하였다.

紅樓夢 作者의 筆鋒은 正確히 이 点을 바로 指向하였고, 問題를 提出하였고, 解決의 길을 提示하였다. 그는 冊中의 主人公 賈寶玉을 빌려서 十九年동안 生活의 來歷과 그의 人生態度를 說

34) 孟瑤, op. cit. p. 551.

35) Ibid. p. 552

36) 松菁, op. cit. p. 309

明하였다. 賈寶玉은 出生하기 以前에는 본래가 하나의 頑石이었다.

却說女媧氏鍊石補天之時, 於大荒山無稽崖鍊成高十二丈, 見方二十四丈的頑石三萬六千五百零一塊. 那媧皇只用了三萬六千五百塊, 單單剩下一塊未用, 棄在靑埂峰下. 誰知此石自經鍛鍊之後, 靈性已通, 自去自來, 可大可小. 因見衆石俱得補天, 獨自己無才, 不得入選, 遂自怨自艾, 日夜悲哀.

紅樓夢의 開端에서, 作者는 한바탕 꿈을 꾸고 나서, 「石頭」의 世上에 나온 것을 빌어, 第三者의 態度로 自己가 人生의 認識에 對해서 叙述한다고 말했다. 其他의 作家는 一面 生活하고 一面 著作을 하지만, 曹雪芹은 生活을 하고난 然後에야 비로소 著作에 從事했다.[37]

하루는 寂漠하여 無聊할 때, 그는 莊子의 거협篇을 읽고 自身도 모르게 붓을 들어 써냈다. :

焚花散麝, 而闔閣始人含其勸矣. 戕寶釵之仙姿, 灰黛玉之靈竅, 喪滅情意, 而闔閣之美惡始相類矣. 彼含其勸, 則無參商之虞矣; 戕其仙姿, 無愛戀之心矣; 灰其靈竅, 無才思之情矣. 彼釵玉花麝者, 皆張其羅而鑿其穴, 所以迷眩纏陷天下者也,

이렇게 써내려온 보옥은 얼마나 통쾌한지를 몰라 혼자 빙그레 득의의 웃음을 띠고는 붓을 던지고 그 자리에 드러누워버리고 말았다. 서두에서 꽃이라 함은 물론 꽃언니로 불리워지는 襲人을 말하는 것이고, 사향은 麝月, 그 다음에 참상이라 함은 참이나 상이나가 다 별의 이름인 것으로, 이 두 별은 서로 만나지지가 않는다는 뜻에서 형제나 자매간의 불화를 말하는 것이다.[38]

계속해서 二十二回에서는, 「寶玉은 曲文을 듣고 禪의 修行으로 체득한 無我의 지경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作用을 깨닫는다.」 아래와 같이 써있다. :

寶釵笑道:「要說這齣戲熱鬧, 還算你不知戲呢! 你過來我告訴你, 這一齣戲, 是一套北点絳唇經錘頓挫, 那音律不用說是好的了, 只那詞藻中有一隻寄生草, 填得極妙, 你何曾知道?」寶玉聽說的這般好, 便湊近來央告道:「好姐姐, 念與我聽聽, 」寶釵便念道:「漫揾英雄淚, 相離處士家, 謝慈悲剃度在蓮台下, 沒緣法轉眼分離乍, 赤條條來去無牽挂. 那裡討煙簑雨笠搖單行, 一任俺芒鞋破缽隨緣化.」寶玉聽了, 喜的拍膝搖頭, 稱賞不已, …[39]

보옥은 보채가 읽지 않은 책이 없는 것을 속으로 탄복했다. 여기에 짜증을 내는 것은 대옥이었다. 연해 기분이 언짢은 모양이었다. 『좀 조용하게 있으면 안돼요? 아직 「山門」도 시작 않

37) 李辰冬, op. cit. p. 33
38) 李周洪 (역), op. cit. p. 424
39) 孟瑤, op. cit. p. 555

고 있는데 왜 자기네들이 먼저 떠들어대고 있는 거에요!』

산문은 崑曲「虎囊彈」중의 한토막.

「水滸傳 가운데의 영웅 魯智深은 趙員外의 주선으로 五台山의 중이 된 것이지만, 어느날 절에서 술을 마시고 산문 앞에서 크게 분탕을 치다가 필경 산을 쫓겨 나오는 것이다.[40]

後에 그는 綉玉과 湘雲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奔走히 두 사람 사이를 往來하여 和解를 붙이려고 할수록 誤解만 커진다는걸 생각치 못했다. 그는 그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돌아다녀, 그로 하여금 비할데 없는 快樂을 맛보게 하였고, 또한 無盡의 시달림을 받았다. 그래서, 「의지할데 없는 외톨박이가 어데인들 못가랴」라는 말까지 생각케 하였다. 다시 붓을 들어 한 首의 계文을 쓴다. :

你證我證　너도 증명 나도 증명
心證意證　마음도 증명 뜻도 증명
是無有證　이것이 증거 없음이오
斯可云證　증거란 본디 없는 것
是立足境　이것이 진심한 경지이니라

자기만은 이 글뜻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해득을 못할 것이므로, 보옥은 다시 「寄生草」의 한 귀절을 계문 끝에다 써 보냈다.[41]

無我原非你　나는 본시 너다
從他不解伊　모르는 사람에겐 몰라도 좋다
肆行無碍憑來去　어디로 가건 제맘대로
茫茫著甚悲愁喜　뭣 때문에 한없이 슬퍼하고 기뻐하는거냐
紛紛說甚親疏密?　뭘한다 귀찮게 血緣의 親疏를 말하는거냐
從前碌碌却因何?　잘도 지금까지 헛되이 지내왔지
到如今回頭試想眞無趣　오늘에 와 후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냐

보채는 이 「기생초」의 일절을 읽고 또 그 계문을 읽어보고 나서 혼자 웃었다. 「이 양반이 아젠 단단히 깨달은 모양인데! 이러고 보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어제 말해준 연극대사에서 크게 반성한 모양이거든! 아뭏든 이런 老莊의 글이나 禪의 公案 같은 따위의 글들은 사람의 성격까지 바꿔놓기가 일쑤인데, 정말 그런 소리를 입에다 담고, 그런 생각에서 만사를 판단하

40) 李周洪 (역), op. cit. p. 443
41) Ibid. p. 449

게 된다면 큰일이야, 꼭 미친 사람이 될 테니까 말야.[42]

비록 보채, 대옥이나, 그 누가 그에게 한마디를 묻는다. 하더라도 啞口無言이었다. 事實上 出世의 생각은 이미 이때 그의 마음 깊숙히 도사려 있었다. 이때 그는 어떻게 집을 離脫하느냐의 過程中에 있었지만, 대옥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다리를 묶어 놓고 있었다. 대옥이가 죽으니 그의 意志는 날로 굳어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자주 움직일수록 여러번 꺾였고, 보채와의 閨房之情은 그로 하여금 더욱 옷자락을 머물게 하였다. 그 위에 더 그를 가로막는 것은 面前의 조모, 부모의 養育之恩이다. 그는 이런 層層의 制約속에서 뛰쳐 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원래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의 愛情이 얽힌 情欲은 바로 人生이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自身의 努力과 慾望과의 葛藤은 조금도 解決할 方法이 없었다……

그러나 결국은 대옥이가 죽었기 때문에 萬事가 허무하여, 그는 意氣銷沈하여 갖가지 생각이 火炎속에 있었고, 지금은 最後의 가는 길을 기다릴 뿐이었다. 많은 사람이 高鶚의 續作을 惡評하는 것은, 其實은 그가 보옥의 性格을 急轉換시켜 安穩케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寶玉의 禪의 世界로 逃避하기 직전의 一殺那를 살펴보자:

寶釵道:「我想你我既爲夫婦, 你便是我終身的依靠, 却不在情慾之私, 論起榮華富貴, 原本過是過眼雲煙, 但自古聖賢, 以人品根低, 又是什麼古聖賢, 你可知道古聖賢說過不失其赤子之心？那赤子有什麼好處？ 不過是無知無識無貪無忌, 我們生來已陷溺在貪嗔癡愛中, 猶如汚泥一般, 正應能跳出這般塵網, 如今才曉得聚散浮生四字！ 古人說了, 不曾提醒一個. 既要講到人品根柢, 誰是到那太初一步地位的？」寶釵道「你既說赤子之心, 古聖賢以忠孝爲赤子之心, 竝不是遁世離群…」寶玉垂頭笑道:「堯舜不强巢許, 武周不强夷齊.」寶釵不等他說完, 便道:「……你自比夷齊, 更不成話……況你自有生以來, 自去世的老太太以及老爺太太, 視如珍寶, 你方才所說, 自己想一想, 是與不是？」寶玉聽了, 也不答言, 只仰頭微笑, 寶釵因勸道:「你既理屈詞窮, 我勸你從此把心收一收. 好好的用用功. 但能博得一第, 便是從此而止, 也不枉天恩祖德了.」寶玉點了點頭, 歎了口氣說道:「一第呢？ 其實也不是什麼難事. 倒是你這個從此而止, 不枉天恩祖德, 却還不離其宗.」……

여기에서 보건데 우리들은 보옥이 解脫의 길을 떠날 時期가 가까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그의 哀心이 冷嚴하고 寂漠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慾望의 火炎이 이미 撲滅하였기 때문이다. 最後로 반드시 깨끗이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시험에 合格하여 천자님과 선조님의 恩德에 보답하느냐 하는 것 뿐이다. 보옥이 어떻게 집을 등져 世俗의 귀찮은 인연을 끊은가를 볼 수 있다.

42) Ibid. p. 450

只見寶玉一聲不哼，待王夫人說完了，走過來給王夫人跪下，滿眼流淚，叩了三個頭，說道：「母親生我一世，我也無可報答，只有這一入場用心做了文章，好好的中個擧人出來，那時太太喜喜歡歡，便是兒子一輩子的也完了，一輩子的好也都遮過去了.」…… 寶玉却轉過身來，給李紈作了個揖，說：「嫂子放心，我們爺兒兩個都是必中的，日後蘭哥還有大出息，大嫂子還要帶鳳冠霞帔呢！」…此時寶釵聽得早已呆了…只得忍淚無言．那寶玉走到眼前，深深地作了一個揖……又聽寶玉說道：「姐姐，我要走了，你好生跟着太太聽我的喜信兒吧！」寶釵道：「是時候了，你不必說這些唠叨話了.」寶玉道：「你倒催的我緊，我自己也知道該走了.」

보옥은 드디어 떠났고, 그는 慾望을 거절했으며 人生을 解脫했고, 一切를 克服하였다.

그가 가늘게 맛본 19년의 경력은 많은 번거로움과 힘들고 고생스러움으로 가득찼다. 慾望을 거절하고 인생의 고해로부터 뛰쳐나가니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한다.

하나는 그는 인생의 苦海속에서 몸부림쳤고, 다른 하나는 人의 고통을 깨달았다. 이런고로 悠然히 出世之想이 났다.

이것은 非常人의 非常의 智慧와 毅力으로써 解脫을 求得하는 바이며, 冊中에서 惜春과 紫鵑이 대표적이며, 一種은 자기 스스로가 苦海에 投身하고, 無數의 苦難을 지내고, 여러번 넘어지면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서 드디어 解脫의 道를 獲得하였는데 書中에 寶玉이 대표이다.

解脫의 方法에 이르러서는 出世아니면 自殺이다.

原因은 萬若 一個人이 참으로 「無慾」할 수 있든가, 곧 槁木처럼 形狀을 갖거나 죽은 재처럼 마음을 갖는 것이다. 生 혹은 死는 그에 對해서는 分別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은면 자기를 죽이더라도 역시 解脫을 대표치는 못한다. 冊속의 金釧, 可棋, 尤三姐, 潘又安처럼 그들은 모두 자기를 毁滅하였고, 그것은 그들의 욕망이 없다는 것을 대표하지 못하고 다만 욕망에 이르지 못하였을 따름이다.

다시 芳官은 비록 出家하였지만 金釧의 一流이고, 鴛鴦도 비록 自殺했지만 紫鵑의 一流이다. 其分別에 있어서 그들은 人生의 苦痛을 참으로 解脫치 못했지 않은가? 欲望을 거절할 수 있는 力量이 있다는 것은 곧 人生을 解脫할 수 있는 力量이 있는 것이다.

紅樓夢은 곧 人生悲劇의 이 道理를 闡明하였다.[43]

그러나 作者 曹雪芹은 도리어 그가 表現한 바의 社會를 깊이 있게 透徹히 보면, 어떠한 女性도 모두 하나의 苦痛의 運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紅樓夢 全書中에 數많은 婦女群像을 보건데, 몇몇은 곤란한 바의 煩惱가 아니고 結局은 비참함에 歸着하지 않은가? 이렇기 때문에 精神上 勝利한 黛玉은 물론 失望하여 죽고, 現實上 成功한 것처럼 한 寶釵 역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地位에 놓여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비로소 一部의 封建時代에 婦女生活을 寫實

43)孟瑤, op. cit. pp. 556~557

的으로 써낸 大悲劇은 完成되었다.[44]

兪 平伯氏는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다. 「우리나라 소설은 전부다 排優文學이고 執筆한 作家는 讀者의 喜悅과 嗜好에 迎合하므로써 能事를 삼아 결코 自己의 胸臆을 용기있게 써내지 못한다. 그런데 紅樓夢의 作者는 도리어 眞正으로 人生의 感興을 높이 노래불러 그는 讀者의 즐거움에 어찌 거슬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 大團圓의 習慣은 現實과 人生의 面에서 勇氣가 있는 것이어서 通常의 慣例를 깨트려 써내니, 眞正으로 마음과 魂을 驚動케한 大悲劇은 바로 이 紅樓夢이 表現한 바의 가장 平凡치 않은 点이다.[45]

B, 優美한 婦女群像

紅樓夢이 나오기 以前에는, 가장 부드러운 筆鋒으로 女人들의 靈魂의 深處에 있는, 男女間의 온갖 情을 찾아내려는 그런 類의 작자는 없었다. (金 瓶梅는 다만 하나의 欲字를 썼을 따름이다) 曹 雪芹은 이 점을 第一먼저 把握을 하여 寶藏의 열쇠로 열어 놓았다. 이 깊이 잠겨있는 大門을 열어놓은 以後 모두들 비로소 이 內面의 光彩에 눈이 어두워졌고, 눈이 암암해져 놀라 우럴어 보고 눈을 어지럽게 하였다. 紅樓夢이 不朽의 作品이란 것은 작자가 하나의 生의 哀歌를 썼기 때문이며, 또한 藝術家의 도끼로 一群의 가장 優美한 婦女形象을 雕塑하는데 成功하였기 때문이다. 二百年來에 小說의 作中人物이 能히 賈寶玉과 林黛玉과 같은 同等의 吸引力으로 充滿된 作品은 아직껏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林黛玉과 賈寶玉은 同一運命이다. 가보옥의 비극은 임대옥으로부터 일어났고, 임대옥의 비극 역시 보옥의 손에 의해서 造成되었다. 그들의 性格은 모두가 環境과의 尖銳의 衝突로써 發生했고 보옥은 勝利를 獲得할 勇氣가 없어서 그녀마저 함께 埋葬하게 되었다. 대옥은 그녀의 父親이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로써 男兒와 어울려 놀이를 한 적이 없어, 그녀의 아버지는 男兒의 教育方式으로 그녀를 가르쳤다. 그것은 그녀가 傳統的인 閨閣의 規範의 訓練이 不足함을 얘기 함이지만, 그러나 詩書文章에 있어서는 도리어 涉獵함이 많았다.

이것은 그녀를 才女로 變成시켰기에 來歷은 不幸하였다. 그러기에 不幸의 運命은 亦是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父親이 일찍 죽으니 그녀는 不得不 賈府에 신세를 져 자라게 되어 環境이, 그녀의 性格이 孤獨하면서 傲慢함을 培養하였다.

一般的인 女兒들과 比較하여 보건데 그녀는 무릇 脫俗하였다. 이러기에 그녀는 「傳統」의 밖에 있는 賈寶玉에 亦是 游離하여 만났다. 그들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엇비슷하다고 생각

44) 松青 op. cit. p. 2

45) 孟瑤. op. cit. p. 558

되어 곧 衷心으로 말못할 騷動이 서로 이끌렸다. 이래서 青梅竹馬의 굳은 벗이 되어 낮에는 같이 서로 붙어 다녔고, 밤이면 같은 시각에 각각 잠자리에 들었다. 참으로 言語와 意願이 아교나 옻나무처럼 하였다. 이것은 一段의 生活中에 그들이 피차가 서로 眞摯하게 사랑을 培育하여 나갔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少年少女가 되고 青春의 覺醒期에도 완고한 兒童式의 함께 있기에는 이미 그들은 무엇인가 滿足하기에는 不可能하였다. 그들은 서로가 終身의 갈 길을 지키고 있었기에 急히 相對方의 愛情의 深度를 測定코저 하였다. 이런 点에서 그녀는 孤獨하였다. 그녀는 愛情을 나타낸 바로 自己는 當時의 環境은 도리어 한가닥 빛나고 너그러운 誠意마저도 갖도록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감정을 불태워 없어지도록 함으로써 만이 흡족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여 고민하였다. 그녀는 呼訴하여 救援을 받을 곳도 없었고, 寶玉마저도 그녀를 도울 能力이 없었다.[46]

天地가 비록 넓고 크다 하여도 그들 두 사람의 몸을 편안한 곳에 들곳이 없었다. 이래서 말없는 싸움이 始作된다.

且說寶玉因林黛玉病了，心裡放不下，飯也懶得吃，不時來問，黛玉又怕他有個好歹，因說道：「你只管看你的戲去，在家裡做什麼？」寶玉因昨日張道士提親事，心中不大受用，今聽見林黛玉如此說，心裡因想道：「別人不知道的還可恕，連她也奚落起我來.」因此心中更比往日的煩惱，加了百倍．若是別人跟前，斷不能動這肝火，只是黛玉說了這話，倒又比往日別人說這話不同．由不得立刻冲下臉來說道：「我白認得了你．罷了罷了.」林黛玉聽說，便冷笑了兩聲道：「白認得我了，那裡像人家有什麼配得上的呢？」寶玉聽了，便向前來，直問到臉上：「你這麼說，是安心咒我天誅地滅.」林黛玉一時解不過這話來，寶玉又道：「昨日還爲這個賭了幾回咒，今兒你到底又重找一句，我便天誅地滅，你又有什麼益處？」黛玉一聞此言，方想起上日的話來，今日原自己說錯了，又是著急，又自羞愧，便戰戰兢兢的道：「我要安心咒你，我也天誅地滅，何苦來，我知道昨日張道士說親，你怕攔了你的姻緣，你心裡生氣，來拿我煞性了.」……那寶玉又聽見她說好姻緣三個字，越發逆了己意，心裡乾噎，口裡說不出話來，便賭氣向頭上摘下通靈玉來，咬咬牙，很命往地下一摔道：「什麼撈什子，我砸了你就完了事了.」偏生那玉堅硬非常，摔了一下，竟文風不動.……那賈母見他兩個都生了氣，……老人家急得抱怨說：「我這老冤家是那世裡孽障，便生遇見這麼兩個不省事的小冤家，沒有一天不叫我操心，眞是俗語說的不是冤家不聚頭.……這話傳入寶黛二人耳內，他二人竟從未聽見過不是冤家不聚頭的這句俗話，如今忽然得了這句話，好似參禪的一般，都低頭細嚼這句話的滋味，都不覺潸然泣下．……（第二十九回）

한바탕 싸우고 난 이후, 계속하여 疏通의 길을 열어 보고저 함으로써 內心의 一致를 取得코

46)Ibid. p. 559.

저 企圖하였다.

這裡寶玉忙忙的穿了衣裳出來, 忽見林黛玉在前面慢慢的走：若有拭淚之狀. 便忙趕上來笑道, 「妹妹往那裡去？怎麼又哭了？ 又是誰得罪了你？」林黛玉回頭見是寶玉, 便勉强笑道：「好好的, 我何曾哭了？」寶玉笑道：「你瞧瞧眼睛上的淚珠兒未乾, 還撒謊呢.」一面說, 一面禁不住搓起手來, 替他拭淚. 林黛玉忙向後退了幾步, 說道：「你又要死了, 做什麼這般動手動脚的？」 寶玉笑道：「說話忘了情, 不覺就動了手. 也就顧不得死活.」林黛玉道：「死了倒不值什麼, 只是丟下了什麼金, 又是什麼麒麟, 可怎麼好呢？」一句話, 又把寶玉說急了, 趕上來問道：「你還說這話, 倒底是咒我？還是氣我呢？」林黛玉見問, 方想起前日的事來, 遂自悔自己又說造次了.」忙笑道：「我原說錯了. 這有什麼？ 筋都暴暴起來, 急得一臉汗.」一面說, 一面禁不住進前伸手替他拭面上的汗, 寶玉瞅了半天, 方說道：「你放心」林黛玉聽了, 怔了半天說道：「我有什麼不放心？ 我不明白這話, 你倒說說, 怎麼放心不放心？」寶玉歎了一口氣問道：「你果然不明白這話, 難道我素日在你身上的心, 都用錯了？ 連你的意思都体貼不着, 就難怪你天天爲我生氣了.」林黛玉道：「果然我不明白放心不放心的話.」寶玉点頭歎道：「好妹妹, 你別哄我, 果然不明白這話, 不但我素日之意白用了, 且連你素日待我之意, 也都辜負了. 你皆因都是不放心的原故才弄了一身的病, 但凡寬慰些, 這病也不得一日重似日.」林黛玉聽了這話, 如轟雷掣電, 細細思之, 竟比自己肺腑中掏出來的, 還覺懇切, 竟有萬句言語, 滿心要說, 只是半個字也不能吐, 却怔怔的望着他. 此時寶玉心中有萬句言詞, 不知一時從那一句話起, 却也拉住道：「好妹妹, 且略站住, 我說一句話再走.」黛玉一面拭淚, 一面將手推開說道：「有什麼話可說的, 你的話, 我都知道了.」口裡說着, 却頭也不回, 竟自去了.」 (第三十二回)

그들은 彼此가 默契를 取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환경과 그들이 對立한 矛盾은 尖銳化 되어 해결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王熙鳳의 奇妙한 謀事로, 寶玉은 드디어 寶釵를 婦人으로 삼으니, 대옥의 愛情은 환경에 依해서 粉碎되는 바가 되었고, 그녀는 생명으로써 殉葬하는 바가 되어 尊嚴하였다. 謀事는 대옥의 一生을 催促하여 짧게 하였다. 대옥은 오직 그녀의 생명이 없어짐으로써 一首의 哀切한 戀歌를 쓰게 하였고, 이 一首의 戀歌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게 되었고, 千古에 不朽토록 하였다.

曹雪芹이 가느다랗고 溫和한 筆觸으로써, 이 一座의 優美한 雕像을 조각하여 만들어 놓으니, 소설이 있어온 以來로, 우리들은 그보다도 더 成功한 作家를 발견해 내지 못했다.

임대옥과 對立되는 雕像을 作家는 또 설보채를 만들어 냈다. 그녀의 性格은 完全히 임대옥과는 틀렸다. 出身을 갖이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역시 같지 않다. 林대옥의 출신이 하나의 中上

層의 官宦之家에서 태어났다면, 설보채의 가정은 도리어 皇帝이라고 할 수 있다. 설보채가 애기한 것처럼 「豊年好大雪, 珍珠如土金如鉄」 四大豪門의 하나이다. 出身의 관계에서 본바대로, 보채의 性格도 商人氣로 역시 充滿했고 그녀는 一個現實의 功利主義者였다.[47]

林黛玉의 戀愛生活이 없으면, 곧 林黛玉도 存在하지 않은다. 林黛玉은 戀愛 以外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48]

紅樓夢에서 賈母의 描寫에 관해서 읽으면 비로소 놀라게 된다. 원래 중국역대에도 그렇게 많은 史傳과 소설이 있어도, 결국 몇 편의 老婦人의 傳記를, 紅樓夢에서처럼 완전에 가깝고 아름답게 描寫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紅樓夢 작자는 세가지 면에서 特点을 갖췄다. 첫째는, 그 여자는 一般의 母親이 아니고 地位는 더욱 높은 環境, 더욱 複雜한 老母이다. 두째는, 한 女家長이 中國社會에서의 權威와 才能을 설명하였다. 세째는, 中國家庭에서는 老婦人이 가장 완전하고 形像化의 典型이다. 紅樓夢의 主題는 戀愛故事와 가정생활 兩部分을 骨幹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보옥과 대옥間의 연애 혹은 其他의 故事가 모두 賈府를 舞台로 하여 表演하였다.[49]

紅樓夢이 誕生한 바는 곧 대옥의 결국 죽음에서이다. 대옥이 죽음으로 悲劇의 題材가 비로소 成立할 수 있다.

대옥의 만약 죽지 않은다면, 곧 누가 작자에게 그렇게 巨大하게 쓸 수 있는 鼓動力을 줄 수 있겠는가.[50]

黛玉의 죽음은 必然的인 事實이고, 작자가 最初로 排定한 必然的인 것이다. 黛玉이가 죽은 것은 戀愛에 失敗했기 때문이며, 연애가 실패한 것은 그녀의 性格이 環境에 적응하지 못하고 용납치 않았기 때문이다.

黛玉은 그녀의 情敵인 보채와는 완전히 性格이 背馳하였다.

寶玉의 逃亡과 黛玉의 죽음은 본래가 不可分의 悲劇의 主題로 構成되었다. 만약 분별해서 본다면, 黛玉의 죽음은 순전히 연애에 실패하여서이고, 寶玉의 도망은 人生에 幻滅을 느껴서 한 것으로 된다.[51]

V 結 論

本書의 作者自說에 依하면 다만 如實히 描寫했을 뿐으로 絕對로 기탄은 안했으며, 단지 作者自身에 對해서는 깊이 懺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實로 人間의 常情의 기뻐하는 바였다.

47) Ibid. pp. 562~564
48) 松菁, op. cit. p. 253
49) Ibid. p. 125
50) Ibid. p. 271

그러므로「紅樓夢」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愛之重之 하고 있다. 그러나 또 人間의 常情이 怪異하게 여기기도 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奮起하여 補正하여서 그것을 圓滿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것으로써 사람들의 度量은 서로 얼마나 差異가 있는가 하는 것을 充分히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曹 雪芹을 追及하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하다.[52]

賈寶玉이 唯一한 目標로 追求한 것은「愛」이다. 사랑을 얻으면 一切를 얻은 것 같았다. 그는 人生의 富貴貧賤에로 秋毫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愛情을 얻지 못하여 空虛함을 맛본다. 最後로 寶玉을 大悟覺醒케 한 것은 黛玉의 죽음에서이다. 그는 兩次에 걸쳐서 만일 黛玉이 죽으면, 그도 出家하겠다고 表示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작자는 愛情으로써 人生의「幻」과「空」을 明確하게 實證하였다.[53]

가보옥은 無我之境을 憧憬하였고, 그것을 實現시킨다.

總括的으로 記述하면, 賈寶玉은 絶對로 한 분의 普通人物이 아니어서, 그는 古代로는 堯, 舜, 文, 武와 다음으로는 阮籍, 陶潛과 竝稱할 人物이다. 그는 석가, 예수의 精神으로써, 人間世上의 苦難을 담당하고, 世上 人間에 說法을 하였다.

작자는 思想家로써가 아니고 宗教家의 態度로써 이러한 人物을 創造하였다. 그에게서, 사람들로하여금 人生을 理解할 수 있는 一方面, 다른 一方面은 人生이 最後로 歸宿하는 곳을 明確히 알 수 있게 하였다.[54]

參 考 文 獻

1. 孟 瑤, 中國小說史, 第四册. 臺北, 文星書店, 民國五十五年.
2. 松菁, 紅樓夢人物論, 臺北, 新興書局,
3. 李辰冬, 紅樓夢研究, 臺北, 新興書局, 民國四十七年
4. 胡適, 胡適文選, 臺北, 遠東圖書公司. 民國五十三年.
5. 魯迅, 中國小說史, 丁來東·丁範鎭 공역, 서울, 錦文社, 1964年.
6. 李周洪 역, 紅樓夢 서울, 乙酉文化社
7. 車相轅, 中國文學史, 서울, 東國文化社. 단기 4291年.
8. 胡雲翼, 中國文學史, 장기근 역, 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 단기 4294년.
9. 尹永春, 19世紀의 東西文學. 경희대학원, 1974.
10. 內田道夫編, 中國小說의 世界. 東京. 評論社, 昭和45年.

51) Ibid. p. 309

52) 丁來東·丁範鎭, op. cit. p. 311

53) 李辰冬, op. cit. p.159

54) Ibid. p.159

— Summary —

Appreciaton of 「Hung Lou Meng」(紅樓夢)

— World of 「Hung Lou Meng」(紅樓夢) —

Kwak Ri-Bu

Since "Hung Lou Meng"(紅樓夢) the light in Ching Dynasity(淸代), it has been widely read. Readers of this work were little interested in the author of the work. Tsao Hsüeh Chin(曹雪芹) was indicated as the author of the novel by "Hu Shih"(胡適) in 1921.

His ancestors were from Han(漢), who were retainers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for the foundation of Ching Dynasity, devating themselves successively to the country as superintendents of the court cloth workers in Chiang Ning(江寧) district, his family being very wealthy.

After Kang Hsi(康熙) emperos death, however, his family's influence declined, by which they found themselves under the necessity of moving to the western suverb of Peking, (北京) being reduced to poverty. Tsao Hsüeh Chin wrote "Hung Lou Meng" (紅樓夢) from its 1 st to the 80th chapter, and Kao-e(高鶚) added 40 chapters more to the work, which were bound up in one volume of 120 chapters.

There is a mansion passessed by the nobility of Chia(賈) lineage in "Shih Tou" castle(石頭城). Shich Tai Chün(史太君), a grandmother and supreme authority, lives in the mansion with the hero, Chia pao yü(賈寶玉), winning her favor all to himself, being a handsome boy.

The story of the work stems from the process of choasing a spouse fur Chia pao yü(賈寶玉). where affcction of his cousin sisters, Hsüeh pao Chai(薛寶釵) and Lin Tai Yü (林黛玉) was entangled, and the story develops by discription of trivial occurrences and events which take place among the family Yüan Chuan(元春), his elder sister and the empress, built Ta kuan yün(大觀園) (a grand garden) in commemoration of her return home.

A misfortune befalls to his family owing to economical failure of the house brough about on the occasion.

The girls with whom Chia pao yü(賈寶玉) falls in love leave him one after another (the story is described in the chapters from the 1st to the 80th). Upon the empress Yüan Chuan's(元春) death, father of Chia Pao Yü(賈寶玉) is dismissed from his government post upon suspicion of profeteering, and he forfeits his property, being

condemned to exile.

A proposal of maniage for Pao Yü is made, and his grandmather Shih Tai Chün(史太君) and his mother Wang(王夫人), by mutual agreement and confidentially, choose Hsüeh Pao Chai(薛寶釵) 'an orthodox utiliterian as his spouse. Chia Pao Yü(賈寶玉) in reality loves Lin Tai Yü(林黛玉) more than any one else, and knows nothing about the inspiracy of choosing Hsüeh Pao Chai(薛寶釵) as his bride.

Chia Pao Yü(賈寶玉) finds Hsüeh Pao Chai(薛寶釵) as his bride instead of Lin Tai Yü(林黛玉) on the wedding ceremony. Lin Tai Yü kills herself out of disappaintment in love on the wedding night.

Chia Pao Yü (賈寶玉) incompliance with his father's advice devotes himself to study, and passes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 next year, but as soon as he leaves the examination hall he enters the priesthood.

The characters of "Hung Lou Meng"(紅樓夢) consist of 448, and it is a stream-of-consciousness standing comparison with "War and Peace" of Tolstoi.

The work attracts reader's keen interest on th merits of its vast tragedy and its delicate and subtle description of the heroines appeared on the stage.

The write is about to pen in this thesis a tragic characteristic and the heroines the description of which the writer has given.